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프로축구·야구 '유관중 경기' 이태원발 코로나에 직격탄

중대본, 내주 열릴 관련회의 연기 요청
K리그 '6월 5일 D데이' 방안 자동 무산
프로야구도 주말 '해제' 계획 전면 수정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다음달 초부터 유관중 전환을 모색했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더 신중한 검토작업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17일 무관중으로 FC서울-광주FC전이 펼쳐진 서울월드컵경기장.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초록 그라운드를 찌렁 찌렁 울려줄 K리그의 '진짜 합성'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다.

전북 현대-수원 삼성의 8일 K리그1 공식 개막전부터 무관중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라운드 경기들이 예정된 6월 5~7일을 유관중 전환의 'D-데이'로 정

한 상태였다.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성공적 방역 시스템을 통해 확진세가 한풀 꺾이고,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이 속속 이뤄지면서 전망은 긍정적이었다.

실제로 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회의를 다음 주중 진행할 계획이었다. 5라운드를 훌쩍이기로 소화할 각 구단에는 27일 내 부지침을 전달해 관중입장에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모든 스케줄이 미뤄졌다. 중대본이 이날 연맹에 "회의를 (일주일 정도) 연기하자"고 통보해왔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불투명계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현실이 연기의 배경이다. 각급 학교의 개학 이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결국 6월초 유관중 전환은 없던 일이 됐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K리그는 유관중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를 착실히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외부상황과는 별개로 이르면 6월 중순부터는 팬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기장 환경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발열체크와 건강문진을 위한 기본적 준비 외에도 경기장 좌석간격 조정, 온라인 입장권 판매 시스템 점검 등도 종합적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날(5월 5일) 개막에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유관중 전환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진 KBO리그 역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됐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김선빈 맹타·효자 외인 '2017 평행이론'

KIA가 대권 탈환한 그때처럼...상위권 도약 '트리플 엔진' 재탄생



'2020년에는 우리가'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김선빈(왼쪽)과 효자 외국인투수 듀오 애런 브룩스(가운데)-드류 가봉이 KIA의 시즌 초반 질주를 이끌고 있다. 이들 3명의 동반 활약은 KIA가 가장 최근 통합우승을 일궈낸 2017년의 모습을 재현하는 듯해 더 주목을 끈다.

3년전엔 김선빈·헥터·팻딘 주축
올해 김선빈·브룩스·가봉이 필필
약체 분류 KIA, 예상 깨고 약진



"그때는 진짜 모든 게 좋았죠."

행복한 기억은 머리 속에 오래 남는다. 뻑뻑한 현실과 마주하다 보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과거를 다시 떠올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프로무대에서 '우승'이라는 진귀한 경험을 한 선수들이라면 그 잔상은 더 진하게 남는다.

KIA 타이거즈는 전신 해태 시절과는 다르게 우승 경험이 풍부한 팀은 아니었다. 조범현 전 감독이 이끈 2009년과 김기태 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2017년 각각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 2차례 우승 사이에는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3년 전인 2017년의 우승 멤버들은 "모든 게 좋았

던 시즌"이라며 당시를 떠올리곤 한다. 막강 선발진과 맹타를 휘둘렀던 타선. 우승을 위해 질주한 KIA 선수단의 투타 호흡은 그 어느 시즌보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우선 외인투수가 대풍이었다. 헥터 노에시와 팻딘으로 이어지는 외인 원투펀치는 그 시절 29승을 합작했다. '에이스' 헥터는 압도적 구위로 20승5패, 평균자책점(ERA) 3.48의 엄청난 성적을 남겼다. 팻딘은 헥터만큼은 아니었지만 9승7패, ERA 4.14를 찍으며 선발로 176이닝을 소화했다.

타선에선 한 시즌 내내 타격왕 페이스를 지킨 김선빈이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타율 0.370, 64타점, 84득점, 176안타를 기록해 타격왕에 올랐다. 당시 상대투수가 공략할 곳이 없는 부채꼴 타법으로 무장한 그는 KIA의 공격 흐름을 만들고 이어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KIA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2020시즌 초반 그 시절의 좋은 기억들이 다시 떠올려지고 있다. 효자 외국인 듀오가 재등장했고, 김선빈은 여전히 맹

타로 공격을 이끌고 있다.

애런 브룩스(1승1패·ERA 3.28)와 드류 가봉(2승2패·ERA 2.70)은 KBO리그 적응을 일찍 마쳤다. 브룩스는 다양한 구종과 힘 있는 구위로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고, 가봉은 시속 140km대 후반의 직구와 변화 무쌍한 체인지업으로 삼진 쇼를 벌이는 중이다.

김선빈은 26일까지 19경기에서 타율 0.361, 10타점, 13득점, 26안타를 기록했다. 맷 윌리엄스 KIA 감독은 "외야 어디로든 타구를 보낼 수 있는 김선빈의 타격능력은 팀에 매우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KIA는 시즌 전 전문가 예상에서 약체로 분류됐다. 그러나 현재 5할 승률을 훌쩍 넘어 물오른 상승세까지 보이며 상위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2017년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2020년의 KIA는 좋았던 기억을 되살려 또다시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 날카로운 호랑이 군단의 발톱과 이빨이 시즌 초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면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골무원·1588·최고라니...K리그 선수들의 재치 만점 애칭들 ▶6면

총 450,000,000Gtd 보장

KPC-Korea Poker Championship

제주대회

6월 19일(금)~21일(일)

우승자는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KMGM 매장 창업을 본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MAIN EVENT 시상 프라이즈

1등 - KMGM매장오픈 (2억상당)

2등 - 4000제주사랑상품권

3등 - 2500제주사랑상품권

main event 300(고객)+10(점주) +10(새틀라이트) 엔트리 고정
대한민국 최대 홀덤 투어 / GPI(세계랭킹)반영 / TDA 공식인증대회 / KPI(한국랭킹)반영

KPC Main Event 시드권 획득방법

각매장 주장원(주간챔피언)
주간챔피언은 메인이벤트시드권+호텔숙박(1인1실)제공
참가조건:주간승점획득자
시드권 양도는 매상승점자끼리만 점주의 승인후 가능.
시드권은 1인 1장만 사용가능.

주장원전

주간랭킹 5등까지 파이널진출
5명 컷오프방식 파이널진출

MAIN EVENT

- ▶ 50평규모
- ▶ 최고급실내인테리어
- ▶ 가맹비
- ▶ 교육비
- ▶ 소방
- ▶ 철거
- ▶ 냉난방기
- ▶ 주방설비
- ▶ 부대시설일체
- ▶ 간판
- ▶ 화장실
- ▶ 테이블

사이드이벤트는 K토크으로 참가가능
시상품은 제주사랑 상품권입니다.